

# KMI 북방물류리포트

**VOL.104**  
SEP 17 2019

발간년월 2019년 9월 17일 (통권 제104호)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+82-51-797-4665 FAX +82-51-797-4659



## 주요 동향

- 제5차 동방경제포럼서 극동개발 위한 협약 다수 체결
- 러시아 주요 교통·물류 업체, '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' 가입
- 아제르바이잔, 자국 내 터키 기업에 터키산 수출품의 자국 내 생산 제안...관세정책 간소화 및 협력 확대 도모
- 타지키스탄, 로군 수력발전소 2호기 가동

## 주요 통계

- 2019년 7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-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 (2019년 8월 넷째 주 기준)
-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

## 주요 동향



### 제5차 동방경제포럼서 극동개발 위한 협약 다수 체결

■ 2019년 9월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투자촉진 및 수출지원공사는 농업, 임업, 항만 및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약 90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함

- 극동투자촉진 및 수출지원공사, 극동개발공사, 연해주정부, 중국 헤이룽장성, 무단장시, Mengniu Dairy Group, Zhongding Dairy Farming사, Step Kh Moloko사는 연간 약 50만 톤의 우유를 생산 할 수 있는 연해주 축산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함
- 또한 연해주에 위치한 미하일롭스크 선도개발구역에서 약 2만ha의 옥수수 가공 공장을 건설해 연간 약 1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계획임

그림 1. 제5차 동방경제포럼 협약 체결 현장



■ 극동투자촉진 및 수출지원공사는 KGK Sudima사와 협약을 체결, 자바이칼 변경에 첨단시설의 목재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

- 일본 최대 바이오 연료기반 전기 생산 기업인 IREKS사는 목재펠릿 생산을 위해 야쿠티야와 하바롭스크 변경에 목재공장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임

## ■ 이외 항만, 도시개발, 운송 인프라 등 건축개발과 관련한 많은 협력 프로젝트가 체결됨

- Otkritie은행은 공공·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화 및 인프라가 개발되는 15개 항만 및 콤소몰스크-니-아무레, 스바보드니시에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
- 러시아 PIK그룹은 블라디보스토크, 치타, 하바롭스크, 유즈노 사할린 4개의 도시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임
- ARPI사는 아무르주에 세관 및 물류 터미널 ‘카니쿠르간’, 산업물류단지 ‘라브노예’를 건설할 계획임
- 극동투자촉진 및 수출지원공사와 가즈프롬은행은 인프라 및 운송시설 현대화, 공공시설 건설 등의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함

김은미 현지 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 
(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)

## 러시아 주요 교통·물류 업체, ‘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’ 가입

### ■ 러시아는 ‘디지털 경제’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자국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·물류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

- 러시아 교통·물류 부문의 디지털화는 ‘정보사회 발전전략 2017~30’과 ‘디지털경제 발전 프로그램 2035’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
- 러시아 교통부는 교통·물류 부문의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‘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(Digital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ssociation)’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, 해당 협회는 2018년에 설립되었음
- 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의 설립 목적은 러시아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러시아 내 다양한 교통·물류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는 것임

### ■ 최근 러시아 주요 교통·물류 업체들이 디지털화 정책 실현에 일조하기 위해 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에 가입하고 있음

- 러시아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(Aeroflot)는 8월에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되었음
- 러시아 교통부 차관은 아에로플로트가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사의 노하우를 타 물류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러시아 물류부문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음
- 조만간 ‘보스토치니 항만(Vostochny Port)’도 이 협회에 가입할 예정임
- 보스토치니 항만 역시 철도와 연계해 첨단 석탄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러시아 물류부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### ■ 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 내에서 회원 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

- 디지털 교통·물류 협회는 당분간 회원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, 향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범위와 추진사업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
- 또한 교통·물류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디지털 관련 제도 및 시스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

---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://famagusta-gazette.com/2019/08/25/aeroflot-becomes-a-member-of-digital-transport-and-logistics-association/>(2019.9.15. 검색)
- b) <https://amazoniainvestiga.info/index.php/amazonia/article/download/428/401><https://news.ati.su/news/2019/09/06/gruzoperevozki-lorp-za-8-mesyacev-2019-goda-sostavili-951-tys-tonn-161000/>(2019.9.15. 검색)
- c) <http://en.portnews.ru/news/283124/>(2019.9.15. 검색)
- d) <http://platon.ru/en/front-page/25-05-2018/8883/>(2019.9.15. 검색)

# 아제르바이잔, 자국 내 터키 기업에 터키산 수출품의 자국 내 생산 제안...관세정책 간소화 및 협력 확대 도모

## ■ 9월 16일 바쿠(Baku)에서 개최된 아제르바이잔-터키 비즈니스 포럼의 일환으로, 양국 정부 간 협력단체인 제8회 공동경제위원회(Joint Economic Commission)가 열렸음

- 터키 측에서는 푸아트 옥타이(Fuat Oktay) 부통령,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노브루즈 메메도프(Novruz Məmmədov) 총리가 참석했음
- 옥타이 부통령과 메메도프 총리는 터키-아제르바이잔의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 하며,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협력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과, 무역거래 확대를 위한 관세 정책 간소화, 이중과세 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했음

## ■ 이날 샤흐인 무스타파예프(Şahin Mustafayev)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

- 무스타파예프 장관은 특히 공동경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“(협력위원회는)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경협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며, 금일 제8회 포럼에서 새로이 채택된 협력 방안은 향후 아제르바이잔-터키 간 무역경제 강화와 공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”며 협력위원회의 성과와 그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
-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무역상대국들 중 하나로, 무역 분야는 양국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. 무스타파예프 장관은 이에 대해 “우리의 과제는 물동량 확대와 무역구조 다변화이며, 향후 체결될 양국 간 무역특혜협정(Preferential Trade Agreement)은 우리의 과제 수행에 기여할 것이다”라고 덧붙였다

## ■ 또한 장관은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되는 터키산 제품의 일부를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음

- 장관은 포럼에 참여한 아제르바이잔 내 사업 중인 터키 기업인들에, 아제르바이잔 내 화학, 석유화학 및 제약 산업 분야 투자 및 아제르바이잔 수출 터키산 식품, 섬유, 전자 제품의 일부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인트 벤처기업 설립 등을 제안했음
- 무역 분야 이외에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TANAP(Trans Anatolian Pipeline), BTK(바쿠-트빌리시-카르스) 철도선, BTC(바쿠-트빌리시-제이한), BTE(바쿠-트빌리시-에르주룸)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제 및 정치,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사업들을 공

동으로 수행해 온 바 있음. 현재 아제르바이잔 측의 유관기관과 함께 터키 총리실 산하 협력 조정위원회(Türkiye İşbirliği ve Koordinasyon Ajansı Başkanlığı)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

그림 1. 아제르바이잔-터키 공동경제위원회



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
(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)

---

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denizxeber.az/2019/09/16/turkiy%C9%99d%C9%99n-az%C9%99rbaycana-ixrac-olunan-m%C9%99hsullarin-bir-qisminin-burada-istehsal-edilm%C9%99si-t%C9%99klif-olunur/> (2019.9.17. 검색)
- b) <https://www.dailysabah.com/economy/2019/09/16/turkey-azerbaijan-agree-to-form-simplified-customs-frontier> (2019.9.17. 검색)



## 타지키스탄, 로군 수력발전소 2호기 가동

### ■ 타지키스탄 정부가 이번 달부터 로군 수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

- 지난 9월 9일 타지키스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에모말리 라흐몬(Emomali Rahmon) 대통령은 독립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자국 내 로군(Rogun) 수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전함
- 로군 댐 및 수력발전 시설은 지난 2016년 10월에 건설을 시작해 2018년 11월 1호기 가동을 시작함
-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로군 수력발전소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 및 안전 표준에 따라 계속해서 정비 및 발전기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
- 추후 로군 댐에는 총 6기의 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상징성도 가지고 있음

### ■ 수력발전 부문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전력 생산량을 보완하고 인근 국가에도 전력 서비스를 공급해 수자원과 물 소비의 균형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음

- 로군 수력발전소는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약 90km 떨어진 파미르 산맥에 위치하며, 총 6기 가동 시 3,600MW 규모의 전력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음
- 아울러 로군 댐에는 현재 2억 입방 미터 규모의 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, 오는 2025년까지 보수와 확대를 목표로 하여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- 잉여 전력의 경우 인근 지역인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, 파키스탄 등지로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

### ■ 타지키스탄이 ‘국가발전전략 2020~2025’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와 자국 내 일자리 창출,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수력발전 부문의 개발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

- 이는 타지키스탄의 에너지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, 1차 산업에 편중된 자국 내 경제 구조를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됨
- 한편 세계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참여 및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특



징적으로 나타남

- 타지키스탄 국가발전전략은 2030년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GDP 3배 이상 성장 및 경제성장률 8% 이상 달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수력발전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

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

(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)

---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kuna.net.kw/>(2019.9.16. 검색)
- b) <https://www.timesca.com/>(2019.9.16. 검색)
- c) <https://www.waterpowermagazine.com/>(2019.9.16. 검색)



## 주요 통계



표 1. 2019년 7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8/2019 증가율
극동지역	11.88 (-1.2%)	6.4 (+0.4%)	18.28	+0.5%
북극해	2.71 (-0.5%)	6.38 (-3.2%)	9.08	-2.2%
발트해	9.28 (+0.5%)	12.04 (+0.6%)	21.32	+0.5%
아조프-흑해	10.32 (+3.5%)	14.7 (+1.3%)	25.02	+2.2%
카스피해	0.3 (+5.9%)	0.37 (+210.63%)	0.68	+2.9%
합계	34.51 (-0.8%)	31.88 (-0.4%)	74.38	+0.6%

\* 주: 극동지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오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베츠키야가반, 데-캐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베크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표 2.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

(단위: 천 톤)

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식료품 및 원자재	375,956.5	76,596.4	375,092.0	76,479.3	864.5	117.1
광물 제품	1,100,495.0	6,460.2	1,100,494.7	6,460.2	0.3	0.0
연료 및 에너지 제품	993,070.1	5,846.4	993,069.8	5,846.4	0.3	0.0
생고무 및 화학 제품	4,471.6	71,583.2	4,052.9	71,323.9	418.7	259.3
가죽원료, 모피 제품	7.9	1,304.4	7.9	1,304.4	0.0	0.0
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92,832.5	6,927.4	92,739.8	6,795.0	92.7	132.4
섬유, 섬유 제품 및 신발	123.4	36,490.7	122.8	36,489.2	0.6	1.6
금속 및 금속 제품	48,909.5	53,060.8	48,795.3	52,605.7	114.1	455.1
기계류	20,491.7	447,400.5	20,298.3	447,383.9	193.5	16.6
기타	174,976.0	40,245.3	174,868.2	40,245.3	107.8	0.0
합계	1,818,264.1	740,068.9	1,816,471.8	739,086.9	1,792.3	982.0

\*주: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표 3.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(2019년 8월 26일 ~ 9월 1일)

연방관구	어종	1kg당 가격	가격 변동률	
			주간	8월 26일 ~ 9월 1일
극동 연방관구	태평양 대구	175.0	0.0%	-11.6%
	명태	107.0	0.0%	+9.2%
	태평양 청어	58.0	0.0%	+16.0%
	가자미	97.0	-1.0%	+7.8%
북극해	해덕대구	208.0	0.0%	-1.0%
	대서양 대구	250.0	+0.8%	-15.3%
	고등어	122.0	+1.7%	-2.4%
	대서양 청어	72.0	+2.9%	+2.9%
발트해	고등어	130.0	+2.4%	0.0%
	명태	125.0	+1.6%	+6.8%
	열빙어	115.0	0.0%	+130.0%
	대서양 청어	85.0	+2.4%	+16.4%

표 4.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

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선어,생물	0	0	0	7	0	0	0	7	-	-	-	-
냉동어	106,307	175,439	1,796	3,038	106,307	175,439	1,796	3,038	0	0	-	-
연어류	6,993	23,366	-	-	6,993	23,366	-	-	0	0	-	-
넙치	612	2,969	-	-	612	2,969	-	-	-	-	-	-
가자미	383	490	-	-	383	490	-	-	-	-	-	-
가자미류	5,835	5,244	-	-	5,835	5,244	-	-	-	-	-	-
청어	8,885	25,027	-	-	8,885	25,027	-	-	0	0	-	-
대구	57,267	78,190	-	-	57,267	78,190	-	-	-	-	-	-
명태	152	287	-	-	152	287	-	-	-	-	-	-
농어	3,038	15,618	-	-	3,038	15,618	-	-	-	-	-	-
간, 곤이 (어란)	1,245	2,100	-	-	1,245	2,100	-	-	-	-	-	-
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등 생선부산물	959	3,037	-	-	959	3,037	-	-	-	-	-	-
생선필렛, 어육	9	157	49	146	9	157	49	146	-	-	-	-
건어, 훈제, 염장, 어분	8,626	135,282	106	617	8,626	135,282	106	617	-	-	-	-
갑각류	7,666	127,632	2	65	7,666	127,632	2	65	-	-	-	-

계류	3,977	12,720	-	-	3,977	12,720	-	-	-	-	-	-
조개류	202	503	-	-	202	503	-	-	-	-	-	-
가리비류	3,104	6,330	-	-	3,104	6,330	-	-	-	-	-	-
오징어류, 문어류	843	3,276	64	252	843	3,276	64	252	-	-	-	-
수산물척추동물	555	1,915	-	-	555	1,915	-	-	0	0	-	-
해삼류	289	1,361	-	-	289	1,361	-	-	0	0	-	-
성게류	0	0	-	-	0	0	-	-	-	-	-	-

(단위: 천 톤, 달러)

\*주: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
(thkim@kmi.re.kr/051-797-4783)